

## 과학·환경 독후감 쓰기

3학년 슬기반 이름 :



읽은 도서명 : 어린이가 지구를 구하는 50가지 방법

[제목] : 어린이가 지구를 구하는 50가지 방법을 읽고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아기고래에게.

안녕? 나는 계성초등학교 3학년 최윤슬이야. 얼마전, 너가 파도에 실려온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너의 뱃속은 40kg이나 되는 플라스틱과 비닐봉지로 가득 차 있었지. 40kg이라니... 나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쓰레기가 너의 뱃속에 들어 있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나도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밖에서 못 놀고, 그리고 학교 갈때 마스크를 써야했어. 고작 마스크 쓰는 것도 답답하고 불편한데 40kg이나 되는 쓰레기를 뱃속에 집어넣었으니.....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잘못이란걸 알고 너무 미안했지만 이 책을 읽기 전, 난 이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어린이가 지구를 구한다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벤져스처럼 흥미로웠어.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환경오염은 어른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선, 환경보호는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 그래서 앞으로 낭비를 안 하기로 결심했지. 일단 난 너를 직접적으로 아프게 했던 1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줄이고 다회용을 쓸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난 플라스틱 병에 담아가지 않고 보온병에 담아가. 그리고 물 낭비를 안 하도록 양치할 때 물을 틀어놓지 않고 양치컵을 사용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음식이나 반찬도 싹싹 긁어 먹으게. 사실 난 학교에선 규칙이라 다 먹지만, 솔직히 집에서 많이 남겼거든. 내 생각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똑같이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내생각은 처음부터 줄이는 게 나은  
거 같아.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위  
험한거 같아.

비록 널 구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의  
친구들은 지켜줄게. 내 생각에는 너를 위한 건 곧 널 위한  
거 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친구이니까.

하늘나라에선 마음껏 헤엄치며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  
할게. 그리고 내가 했던 약속들도 꼭 지킬게. 네가 지켜봐줄  
래?

- 지구 지킴이 1호 최윤슬이 -